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학명	중국청년정치대학	학비	-
파견지역	베이징(北京)	기숙사비	755,000원 (한학기/본교납부)
파견기간	2015.03.03.~07.03	기타비용	한 달에 4~50만원 정도

▣ 파견자 정보

성명	☆☆☆	학과	☆
성별	女	학년	3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5. 7 . 31 .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처음에 학교에 가면 반배치 고사를 보게 되는데, A,B,C반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 다시 A1-1 이런 형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뉜다. 보통 A,B반은 회화, 듣기, 종합 이렇게 세과목만 배우지만, C반부터는 작문과 독해 과목이 추가 되어 총 다섯 과목을 배우게 된다. 우리학교의 가장 좋은 점은 수업시간과 과제가 많아 짧은 시간동안 중국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학교에 비해 수업시수가 매우 많은 편이다. 8시 50분에 수업을 시작해서 점심시간을 가진 후 3시 30분에 보통 수업이 끝난다. 한 반에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18명 정도 구성되고, 한국인 보다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더 많고 폴란드, 앙골라,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 선생님들이 모두 열정적이시고 학생들을 잘 챙겨주셔서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수업형태는 선생님들께서 각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과 수업자료를 ppt형태로 준비해 오셔서 판서와 병행하여 수업해주신다. 회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조를 정해주셔서 거의 매일 조별로 발표하고 역할극 같은 형태로 수업을 하신다. 종합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나왔던 문법위주로 수업을 해주신다. 듣기 과목이던 회화, 문법이던 말하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매 수업시간마다 중국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수업시간에만 열심히 참여를 해도 한 학기동안 충분히 회화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숙제는 각 과목마다 거의 매일 내주시는데 그 날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내주셔서 숙제만 해도 복습, 예습을 다 할 수 있고 숙제를 하고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학교는 북경의 서북쪽에 위치한 해정구(海淀区)에 있다. 해(海)는 호수를 뜻하는 명칭이라 그 이름에 맞게 이곳은 옛날에 호수와 비옥한 땅이 많아 옛 황제들의 여름별궁의 대표적인 곳이 되었다 한다. 현재에도 황제의 여름별궁인 이화원과 원명원,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북경의 굵직한 대학들과도 가까이 위치해있다. 이밖에도 버스를 타고 몇 분만 가면 북경의 대표적인 고궁을 볼 수 있다. 기숙사 쪽 작은 교문으로 나오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버스를 타고 세 정거장만 가면 지하철 6호선을 탈 수 있는 역이 있어 교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처음 학교에 와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교등록을 하게 될 때 교통카드를 받게 된다. 이 교통카드로 중국의 버스와 지하철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안경점과 빵집, 경극을 보는 곳과 煎餅을 파는 곳까지 모두 가까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학교 안에 과일가게와 미용실, 문구점 생필품들을 파는 가게까지 모두 있어서 사실은 학교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식당은 2개가 있고 두 개의 동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하나는 1층부터 3층까지 중국의 각 지역 특색에 맞게 메뉴를 만들어 놓아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맛 볼 수 있다. 각 지방에서 온 학생들을 배려하여 산둥지역, 사천지역 등 중국 각 지방의 대표적인 메뉴와 한국 음식 역시 팔고 있어서 한국음식이 그리울 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반대편의 식당에는 火锅를 팔고 있어서 큰 식당에 가지 않아도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안에서 먹을 수 있다. 북경답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파란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드물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755,000원(해오름기준)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12시 이후에는 개방되지 않으므로 12시까지 입실해 있어야 한다.		
주요사항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층의 관리자분들께 말씀드리면 된다. 휴여 외출 시 방 카드를 챙겨 갖고 오지 않아 방문을 열 수 없다면, 관리자 분께 말씀드리면 된다. 4층으로 구성되어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므로 짐을 옮길 때에 4층의 학생들은 유의해두길 바란다.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책상과 침대가 각각 2개씩 마련되어 있다. 책상에도 서랍이 있고, 침대에도 수납공간이 있어서 물건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고, 분실의 위험을 걱정한다면, 1층의 관리자분께 말씀드리면 돈을 지불하고 열쇠로 잠그고 다닐 수 있다. TV는 작동이 되는 방도 있고 되지 않는 방도 있다. 에어컨도 구비되어 있어서 후에 1층에서 리모컨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켜기 전에 필터를 확인하고 먼지가 많으면 반드시 직접 청소를 해야 한다. 에어컨청소는 따로 해주지지 않는다.)



옷장도 방에 2개가 구비되어 있고, 도난의 위험이 있다면 책상과 마찬가지로 열쇠를 받을 수 있다. 퇴실시에 열쇠를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옷장이 크고 넓어서 충분히 수납할 수 있다. 보통 캐리어와 같은 큰 가방은 옷장의 맨 위에 올려놓고 보관을 할 수 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매일 아침마다 청소를 해주시는 이모님이 오셔서 화장실의 휴지통과 방안에 있는 휴지통을 비워주신다. 매주 금요일은 대청소를 해주시는 날인데, 화장실의 하수도까지 정리해주시고 깨끗하게 락스로 청소도 해주신다. 방 같은 경우는 금요일마다 바닥을 닦아주시고 이부자리도 정리해주시다. 하지만 휴지 같은 경우는 직접 마트에서 구입하여 갈아 주어야 한다. 필터샤워기를 챙겨 왔을 경우에는 샤워기를 교체하기 전 기존에 있던 샤워헤드를 보관해야 되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각 층마다 공용 세탁실과 공용주방이 한 곳에 같이 있다. 세탁을 할 때에는 1층에서 항상 세탁코인(洗衣币)을 구매하여 세탁기에 넣어주어야 한다.洗衣币의 가격은 한 개 당 4元이다. 검은 옷 같은 경우는 먼지가 많이 달라 붙으므로 세탁망을 준비해온다면 옷에 먼지도 잘 붙지 않고 훨씬 좋다. 방에 빨래건조대는 따로 없으므로 중국에 와서 하나 구입을 하는 방법과 아니면 방의 전 주인이 놓고 간 건조대를 얻는 방법이 있다.



세탁기와 같이 있는 공용주방에는 공용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인덕션 전기렌지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다. 기타 조리도구와 재료는 직접 구매하여 이 곳에서 조리를 하면 된다. 항상 조리 후에는 깨끗이 정리정돈 해준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학교의 자랑인 도서관은 매일 본과 중국인 학생들로 넘쳐난다. 유학생은 카드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출입할 때에는 관리원에게 학생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양한 책을 접해볼 수 있고, 자습할 수 있는 책상이 많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도서관 안에서는 인터넷도 빠르게 잘 된다. 다만 11시가 되면 소등을 하므로 반드시 11시 전에는 나와야 한다.

〈도서관전경〉



유학생 건물내부는 학교의 다른 건물 강의실보다 가장 쾌적한 환경이다. 사진은 이번 한학기 수업을 들었던 반의 강의실 모습이다. 이 강의실 처럼 ㄷ자형태의 열린 강의실도 있고, 보통 강의실 처럼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강의실도 있다. 그것은 담임 선생님의 재량이므로 반마다 다르다 수업자료를 볼 수 있는 TV와 판서가 가능한 화이트 보드도 구비되어 있어 수업을 듣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강의동은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엘리베이터는 없다. 〈강의실〉



중국 다양한 지방의 특색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처음 학교 등록을 할 때 식당카드를 받게 되는데, 그 식당카드로 먹고 싶은 음식을 구매하여 밥을 먹을 수 있다. 각 판매대 앞에 카드를 찍는 기계가 마련되어 있다. 2,3층의 판매대에서는 카드인식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계산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현금도 가능하다. 학교안의 ATM기계 옆에 카드를 충전하는 곳이 있으니 금액이 모자라면 그 곳에서 충전을 하면 된다.

〈식당〉

교환학생 파견 수기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도시이기에 망설임 없이 베이징에 위치한 우리학교를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베이징에는 문화유적이 많아 주말을 이용하여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베이징에 위치한 학교를 지원하고 싶었다. 중국에서 생활하기 전에는 중국과 중국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4개월 동안 이곳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나 스스로 결론을 내리자면, '중국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중국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친절하고 배려심이 뛰어나며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다.

흔히 중국은 짜퐁의 나라, 유행이 뒤떨어진 나라 등 안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많이 되어있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며 사람들 또한 자부심을 느끼며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한류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중국은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이며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한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밖에 나가 길을 걷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국음악을 들을 수 있고 중국버스에 걸려있는 한국연예인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중국친구들은 낯선 타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 거리낌 없이 먼저 다가와주고 세심한 것 하나까지 잘 챙겨주는 마음씨 따뜻한 친구들이었다. 친구들을 처음 만났던 3월에는 중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대화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친구들은 천천히 나를 기다려주며 내가 혼자 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한번은 중국의 휴일인 노동절에 친구가 집에 초대해 준 적이 있었는데 3일 동안 친구의 집에 머물면서 중국가정의 문화와 예절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 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학교로 돌아갈 때 눈물을 흘릴 만큼 짧은 시간동안 정말 감사했고 정도 많이 들었다.

매주 금요일에는 수업이 12시에 일찍 끝났고 오후에 선택적으로 문화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나는 중국친구를 통해 좋은 기회를 얻어 금요일마다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베이징 번두리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맡아 방과 후 활동처럼 미술과 관련하여 창의적 수업을 하는 활동이었다. 처음에는 중국친구들의 보조만 맡아서 했었는데 나중에는 학교 수업에서 배운 중국어를 바탕으로 친구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좋은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침착하고 자신 있게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울 수 있었고 더불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리장성, 고궁 등 반 학생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평소에는 교통편에 부담이 되어 가지 못했던 곳이라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유적탐방을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학교는 학교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中央团校(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간부양성학교)로 본과 학생들의 학구열이 매우 높고 학교 또한 공부하기에 매우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정말 많은 학교이지만 단점을 하나 꼽자면, 일반 한국유학생은 해당되지 않지만, 교환학생은 辅导수업(중국학생과 1:1로 정규 수업 후에 보충수업을 하는 것)에 참여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지만 오히려 스스로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어보려 노력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아,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문과 학생으로서 재학하는 동안 중국에 가서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항상 꿈꿔오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교환학생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에 소망했던 것을 이룰 수 있어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중국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다. 내가 중국에게 받았던 고마움을 한국에 돌아와서도 잊지 않으며 우리학교의 유학생들을 도와줌으로써 똑같이 돌려주고 싶고, 앞으로 학교의 유학생 관련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보고 싶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나에게 부족했던 중국어를 향상시켜 주었고, 앞으로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또한 중국에 대한 나쁜 인식을 따듯하고 좋은 인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 소중한 기회였다.

내가 지원했던 학교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다른 좋은 학교들도 많이 있다. 학교의 수업프로그램, 한국인 구성 비율이 많고 적고에 신경을 쓰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